

발달장애인의 언어적 특성과 그림검사의 타당도 연구^{*1)}

이달엽, 노임대, 이승욱(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개인의 자기부양 책임이 중요하게 되며,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선의 실천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은 균등한 시장 편입 기회를 통해 자기 부양에 필요한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권리의 조화아래 국가는 국민 각자의 경쟁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신장시키며, 구성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수립과 운영·보완,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대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를 지닌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또 재활이 추구하는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도록 하는 사회통합은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 시민적 권리 및 의무의 회복에 있다.

UN은 장애 출현율을 전체 인구의 10%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4,500만 명 정도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약 150만 명에 가까운 법적 장애인들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인격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시민권적 신분 보장을 위한 취업과 재활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을 회복시켜 장애를 지니지 않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자유와 능력을 신장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도구가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KRF-01-041-C00655)”에 의해 연구되었음

되기 때문이다. 기회평등 이론에 따르면 장애인의 바람직한 재활을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기회 확대가 필수적이다 (Mithaug, 1996). 장애인이 사회통합,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고 최소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력을 지닌 실체가 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노동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복지보다는 직업생활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들이 열등하다거나 일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며, 동등한 인간적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수교육과 재활현장에서 통합교육과 지역사회재활을 강조하는 이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심리적 자신감의 증대와 자아존중감의 강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회로부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증대시킨다는 기회평등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김성애, 2001; Mithaug, 1996). 이처럼 중증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물질적 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사회참여의 통로가 되는 동시에, 교육과 같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중심이 되는 직업재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내담자-중심 평가이며, 이것은 인간의 발달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기초를 둔다 (Lee & Park, 2000).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제도적, 환경적 개선노력과 더불어 심리적 요소들을 다루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생활상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사회구성원들 스스로 자신의 책임아래 자기 자신의 복지를 마련해야 하며, 이들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때 비로소 자아를 실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와 같이 중증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시킬 권리가 있다. 내담자-중심평가 과정에서 재활전문가들이 인지적 제한을 지닌 내담자들의 심리적 욕구들을 파악하고 충족시키려 할 때 각종 검사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는 검사, 관찰, 생활력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이들 중 전통적으로 검사 방법이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비교적 수행이 간편하고 편견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적 경험과 발달이 지체되거나 제한되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필검사 형태의 평가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문해력과 같이 언어 능력이 지체되거나 결여된 발달장애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그림 검사이며,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림검사의 타당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타당도의 개념과 분류에 있어서 전문가에 따라 조금씩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고

개념 자체가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을 평가하는 도구로서의 검사가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으로 타당도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체나 정서에 장애를 가진 개인을 평가할 때에는 더욱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에 보다 가까운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발달장애인의 언어적 특성과 검사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발달장애인 원조 및 권리법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 Bill of Rights Act of 1984, PL98-527)에서는 발달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김승국, 1997).

“발달장애는 정신지체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결합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나타나고, 무한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자기보호, 수용 및 표현언어, 학습, 이동, 자기관리, 독립생활능력, 경제적 자급자족 등의 영역에서 3가지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기능상의 한계를 갖고, 평생 또는 장기간 특수하거나 둘 이상의 다른 분야나 일반적인 보호·처치·기타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중증의 만성 장애이다.”

이렇게 발달장애를 정의하게 될 때 발달장애에는 정신지체와 자폐의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고, 정서장애의 일부도 포함되며, 지체장애를 지니면서 지적인 면에서 장애가 있는 중복 장애나 뇌성마비가 포함될 수 있다. 미국정신의학회는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의 정의를 보다 광범위하게(pervasive) 인식하여 자폐, 레트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 불특정 광범위 발달장애까지 분류하고 있다. 또한 뇌성마비는 뇌손상에 의한 마비로 인하여 근육의 협응과 운동에 장애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언어, 인지, 시각, 청각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성 검사 (verbal test)에서는 언어로 된 지시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대답을 언어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격상 수줍은 아동이나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못하는 수가 있다. 그리고 동작성 검사 (performance test)에서는 검사도구를 손으로 조작해야 하므로 동작에 장애가 있는 아동은 검사를 받을 수가 없거나 불리한 점수를 얻게 된다.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말이나 동작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지능검사를 고안했는데, 그것이

곧 그림 지능검사이다.

서봉연, 정보인, 최옥순 (1986)에 의해 개발된 그림 지능검사 P.T.I는 일반아동을 위한 교육용으로 쓰이는 동시에 장애아동을 위한 임상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제작자가 측정한 구성개념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에 근거하여 제작된 이 P.T.I는 어휘력, 수계산 능력, 지각적 조직능력, 기억력, 그리고 추리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여섯 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휘능력 검사, 형태면별 검사, 상식 및 이해 검사, 유사성 찾기 검사, 크기와 수개념 검사, 회상능력 검사가 그것이다. 고대·비네 검사 (전용신, 1970)와 한국판 WISC (이창우, 서봉연, 1974)는 언어장애와 동작장애를 지닌 특수아동들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어 미국에서 오래 동안 사용되어 온 P.T.I를 한국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한 것이다. 주의가 산만한 대상자들에게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지시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자이면 누구나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검사 실시가 간편하고 채점도 간편한 특징이 있다. 이 검사도구의 개발시 K-PTI와 K-WISC 간의 준거 타당도를 산출한 결과 .95의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8주 간격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98로 높게 나타났다 (이창우, 서봉연, 1974).

학습과 기억과제에서의 심상 (imagery) 연구 가정은 학습자가 학습과제에 대한 정신적 심상을 가지면 학습과제를 획득, 이해, 보유하는데 있어서 심상구조가 없을 때보다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자극이 구체적일수록 심상이 유발되기 쉬운데, 구체적인 자극은 반응이 연결될 수 있는 “개념적 고리 (conceptual peg)”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림 자극에서는 회상이 증가되어지고 활자 자극에서는 회상이 감소된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O'connor & Hermelin (1973)은 정신지체아동의 단기 기억의 한 특징을 시각적-공간적 약호화 능력에 의해 설명하였다. 즉 정신지체 아동 특히 언어지능이 낮은 정신지체아동은 감각양상의 선택에서 청각적 반응보다 공간적 반응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지적 과정 (cognitive process)과 언어적 수행 (linguistic performance)간의 불일치는 정신지체인의 현저한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예로서, 정신지체인은 모든 발달 단계에서 비언어적 매체보다 언어적 매체에 의한 인지적 수행능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 말은 자극의 구체성이 높을수록 즉, 심상 (imagery)의 유발 효과가 높을수록 학습이 용이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지체아동집단 ($n=20$, $\bar{X}=36.5$, $SD=3.649$)과 정상아동집단($n=20$, $\bar{X}=36.9$, $SD=2.469$)간에는 형상적인 자극의 재인수행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t=41, p > .05$) 언어적 자극의 재인수준에서는 정신지체아동집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4.50, p < .05$). 정상아동집단에서는 언어적 자극($n=20, \bar{X}=40.95, SD=1.538$)의 재인수행수준이 형상적 자극($n=20, \bar{X}=36.9, SD=2.469$)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1.78, p < .05$).

그림 검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관심, 성격적 구조를 투사시키는 목적을 지닌 투사적 검사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투사적 검사의 특징으로는 반응의 독특성, 방어의 감소, 반응의 풍부함, 무의식적 내용의 반응을 들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검사의 신뢰도, 검사의 타당도,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검사의 구성타당도에 있어서는 투사적 검사의 반응내용을 이원적 자료로 채점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G분석에 있어서 Q요인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집단간 판별과 요인분석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생활사, 검사, 행동관찰을 성격에 관한 정보제공 출처로 제시한 Cattell (1963)의 접근방식도 포함된다.

한편, 인물화 검사는 투사적 성격검사로써 특히 자아와 환경관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다 (김재은, 여광웅, 김동극, 1991; 김태런, 1993; 김태런, 1972; 김태런, 박량규, 1996; 서봉연, 정보인, 최옥순, 1986). 이것은 그림이 자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긴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림은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거나 개인의 심리적 특징과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투사적 도구라고 보는데 있다. 인물화 검사는 성격 검사 보다는 지능검사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어 아동의 지능발달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세부묘사를 얼마나 많이 하였는가를 측정준거로 삼았다 (김재은외, 1991). 이것은 인물화 검사에는 신체상과 자아개념의 투사뿐만 아니라 환경에 있는 주요 대상에 대한 피검사자 태도의 투사, 이상적 자아 이미지의 투사, 외적 환경의 결과, 개인 습관의 표현, 정서적 상태의 표현, 검사자나 검사 상황에 대한 피검사자 태도의 반영, 인생과 사회에 대한 피검사자의 태도 반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투사된 신체 심상은 그려진 그림이며, 종이는 환경을 의미한다 (한국심리학회, 1997).

많은 연구에서 성인의 인물화보다 아동의 인물화 타당도 연구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으며, 인물화 검사연구에서 성과 연령 변인이 고려될 때 보다 정확한 결과가 기대된다 (김재은외, 1991). 그림좌절검사에 의한 정상아와 청각장애아의 비교연구에서는 이들의 심리적 반응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박영보, 1982). 신화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인간이해의 보조수단으로서 만들어진 나무 그림검사에서는 형태분석과 필적학적 분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해석기법이 있다 (한국미술치료

학회, 1997). 1949년 Charles Koch의 '나무그림검사-정신진단학적 보조수단으로서의 나무그림 검사'가 발표되면서부터 검사로 시작되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1997). 나무그림검사가 갖는 장점은 실시하는데 거부감이 적고 기록이 남아서 발달이나 치료의 과정을 검토하는데 가치가 있으며 검사시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나무그림 검사가 갖는 단점으로는 검사실시는 간단하지만 해석하는데 연령변인이 고려되어야 하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상징적 의미의 기계적 적용은 피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언어적 능력과 이해를 지닌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성 검사의 다른 표현인 지필 검사 형태의 흥미검사로는 스트롱 흥미검사 (the Strong Interest Inventory : SII), 쿠더 흥미검사 (Kuder Occupational Interest Survey : KOIS), 그리고 자기탐구식 흥미검사 (Self-directed Search : SDS)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Betsworth & Fouad, 1997). 비언어성 그림 흥미검사로는 기스트 그림검사 (Geist Picture Interest Inventory : GPII), 광역 흥미검사 (Wide-Range Interest-Opinion Test : WRIOI), 비독성 직업흥미검사 (Reading-Free Vocational Interest Inventory : RFVII), 그림 진로검사 (Pictorial Inventory of Careers : PIC), 직업훈련 및 탐구검사 (Vocational Training Inventory and Exploration Survey : VTIES) 그리고 진로평가 탐구검사 (Career Assessment Survey Exploration : CASE)와 같은 여섯 가지가 매우 유용하다 (Elksnin & Elksnin, 1993).

이 중 그림 흥미검사는 특히 피평가자의 호기심을 유도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며, 이러한 도구들의 측정영역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Dunn & Dunn, 1981).

① 광역 흥미검사

각기 3개들이 그림이 150조로 짜여진 검사도구이다. 피평가자에게 각 조마다 가장 선호하는 그림과 가장 싫어하는 그림을 고르게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직업과 관련 지운다. 따라서 피평가자 측면에서는 읽기 능력이 필요 없다. 평가결과는 선정된 18개의 직업군에 대하여 표준 T점수로 제공된다. 예를 들면 미술, 드라마, 판매, 관리, 사회봉사, 기계학, 모험, 야심, 좌업, 흥미개발 등과 같은 직업영역들이 있다. 이러한 직업군들은 그림으로 표현된 450개의 직업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30개 직업군으로 좁히고, 이는 다시 심리학자들의 검토와 통계적 과정을 통해 축소되었다 (Jastak & Jastak, 1979).

② 기스트 그림 흥미검사

모두 세 종류의 직업활동들을 보여주는 44장의 그림카드로 이루어진 기스트 그림 흥미검사는 남자의 경우 모두 11 가지 일반적인 흥미영역을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여자는 개인서비스 (personal service)가 이에 추가되어 있다. 즉, 남성 11 가지, 여성 12 가지의 일반 흥미영역으로 구성된 양적인 평가로 이 검사는 언어장애인의 흥미를 쉽게 탐구할 수 있다. 소책자에는 모두 130개의 그림이 있는데, 부업과 주요 직업을 나타내는 세 종류의 그림이 44장에 그려져 있다. 피평가자가 스스로 채점을 할 수 있고 시간제한이 없으며, 개인과 집단 검사가 가능하다. 읽기 장애가 있다면 그림의 지시와 질문을 동료가 크게 읽어주고 선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③ 비독성 직업흥미검사

비독성 직업흥미검사는 피평가자에게 세 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검사이다. 이 비독성 직업흥미검사는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직업들을 나타내는 활동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55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1 가지 직업범주들로 구분된다. 이 검사의 기준은 특히, 학교, 작업장, 재활원, 직업훈련센터에 있는 정신지체인과 학습장애인의 전국적인 표본에 의거하여 작성되어 유용하다. 채점과 해석은 비교적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다.

비록 구성타당도에 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이상에서 설명된 세 가지 검사 도구들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앞서 논의된 직업흥미검사 도구들의 주요 특성들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lksuin & Elksnis, 1993).

<표 1> 그림 흥미검사 도구의 특성

검사도구	흥미영역	기준채택	반응	응답방식
기스트흥미검사	남자 11 여자 12	기준검사	강제식	문항에 동그라미
WRIOT	18	기준검사	강제식	답안번호를 검게 칠하기
비독성 직업흥미검사	11	기준검사	강제식	문항에 동그라미
진로평가 및 탐구검사	13	비기준검사	슬라이드	항목번호에 동그라미
진로그림검사	17	기준검사	슬라이드	5점, 3점척도에 동그라미
직업훈련 및 탐구검사	15	비기준검사	슬라이드	세 가지 반응중 하나표시

3. 인지적 제한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검사와 타당도 문제

정신지체와 같은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배타성이나 편견 등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직업교육이 큰 비중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재할 할 수 있는 적절한 직업교육에 필요한 직종 선정도 용이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구성도 쉽지 않다.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인의 검사와 관련하여 제기 되는 문제점들은 최소한의 읽기 능력을 요하는 검사도 이들에게는 비현실적이며, 그림 검사의 경우에도 제시된 직업보다는 그림 속에 있는 구체적 인물이나 항목에 대한 반응 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Stodden, Ianacone, & Lazar, 1979). 직업평가의 일부인 흥미 검사의 역할은 장애인의 제반 장점들을 찾아내고 이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잠재력과 능력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 정신지체와 같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업평가에서 잘 다루어지지 못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할 수 있다.

- ① 전통적인 경쟁 노동시장에 잘 고려되지 않았다.
- ②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성숙의 부족이라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
- ③ 적절한 측정 방법의 부족

이 중 측정 방법의 부족은 상당한 경험과 언어적 능력을 요하는 스트롱 흥미검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구 자체의 제한점에서 기인한다 (Stodden et al., 1979). 흥미검사가 내담자 중심의 발달적 성장과 인식변화 활동을 위해 사용될 때 이들 검사의 유용성에 관한 이슈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Stodden et al., 1979).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에서 긴 시간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많은 비판은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정신지체인들은 타당한 직업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성숙이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일반 대중의 태도와 직업선택 및 읽기 수준과 관련한 적절한 측정방법의 부족으로 인해 직업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합리적인 진로지도와 훈련이 제공된다면 대부분의 정신지체인들은 직업적인 성공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흥미검사에서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내담자의 자기 보고에 의존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표현된 흥미와 검사된 흥미에 있어서 타당도가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표준화된 검사는 질문지 방법과 슬라이드 또는 그림을 주로 이용한다 (Elksnin & Elksnin, 1993; Walsh & Osipow, 1983). 그림은 이성의 지배를 피하여 객관화된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간 자신의 본래모습을 드러나게 해

준다 (김동연, 정현희, 1997). 질문지 방법은 검사 내용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표현할 수 있고 실시가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언어적인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에게서는 사용이 제한적이며, 실시 장면에서 부수되는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활동이나 태도, 직업 등에 관한 설명이 검사에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흥미검사의 대체 형태로는 작업 표본이나, 카드분류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질적인 평가방법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이나 문답에 의해서도 관찰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관찰자와 면접자의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관찰하는 상황이나 문답의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동의 지능을 정확히 측정하려고 할 때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사용한다.

오늘날 언어성 흥미검사들이 재활영역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지만 읽기 능력의 요구로 인해 중증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그 유용성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Anderson, 1986; Batsche, 1982; Scarpati, 1982; Stodden et al., 1979). Elksnin 과 Elksnin (1993)의 연구에 따르면 SDS, Occupational Aptitude Survey & Interest Schedule, Occupational Interest Survey, Strong-Campbell 흥미검사, 그리고 Vocational Research Interest Inventory의 다섯 가지 흥미검사 모두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읽기 능력 (readability)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418명을 대상으로 한 이상욱 (1995)의 조사연구에서도 청각장애인의 문해 능력은 건청인의 50%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항목 독해력 (readability)에 관한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언어성 흥미검사들이 대체로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읽기 능력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경우 중학교 2학년 수준이나 심지어 대학수준의 독해력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ksnin & Elksnin, 1993). 특히 수용성 언어 능력에 초점을 두는 피바디 그림 성취검사의 경우 학업적 적성이 특정하며 표준 아메리카 영어 지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Dunn & Dunn, 1981). 피바디 그림 성취검사는 특히 영어 어휘력을 요구하는 직업 탐색이나 직업 배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업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고용전 훈련에 적합한 도구로 인식된다 (Dunn & Dunn, 1981). 그림 흥미검사에서는 규준의 크기와 관련하여 WRIOT와 Reading-Free Vocational Inventory-Revised 만이 적절하다고 판정되었다 (Elksnin & Elksnin, 1993). 피바디 그림 검사 (PPVT)의 경우, 흑백의 선으로 제작된 180검사 문항의 그림을 난이도에 따라 배열하고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전국 성인 828명과 청소년 및 아동 4,200

명을 대상으로 원점수를 얻어 정교화 하였다 (Dunn & Dunn, 1981). 이에 더하여 정신지체인에 대한 직업 흥미검사의 선택과 사용에 관한 몇 가지 비판은 다음과 같다 (Stodden, Ianacone, & Lazar, 1979).

- ① 정신지체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직업영역에 대한 검사
- ② 정신지체인의 선택에 반하는 여러 가지 편견들
- ③ 부적절한 읽기 능력수준과 동기부여의 결여
- ④ 상이한 유형의 직업들은 상이한 수준의 지능을 요한다
- ⑤ 느린 학습자는 곧 빈약한 학습자라고 하는 오해
- ⑥ 지능은 연속적이고 항구적인 특성이다
- ⑦ 정신지체인은 지루한 일에 잘 인내한다는 오해
- ⑧ 모든 정신지체인은 동일한 흥미와 성격특성을 가진다는 오해

쿠더 직업 흥미검사와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는 피평가자에게 언어적 영역과 광범위한 경험을 요구한다 (Stodden, Ianacone, & Lazar, 1979). 그러나 질문지나 혹은 투사적 검사에 반응하는데 필요한 언어적 기술을 습득하지 않았거나 언어적 결손을 보이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이러한 직업흥미검사도구에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지닌 중증장애인들의 직업발달과 흥미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가 그림 흥미검사라고 볼 수 있다 (Sucn & Ary, 1989). 정신지체를 포함하여 언어성 검사에 필요한 지적 능력이나 생활경험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림검사의 개발은 각종 상담의 매체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진로지도, 진학계획, 직업선택, 훈련종목의 선택, 선택적 직업배치, 직업 변경 등 여러 측면의 인력관리와 직업재활 및 적응에 기여하게 된다.

그림 흥미검사 도구들의 타당도와 항목독해력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Frequency of Gobbleygood (Gunning, 1968), Flesch 공식 (1949), 그리고 Forecast 공식 (Sticht, 1975) 이 있다. 여기서 타당도 (validity)란 평가의 도구가 무엇을 측정하느냐의 문제인 동시에 그 평가의 도구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평가해 내려는 목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평가의 결과와 애초에 평가해 내려는 목표와의 관련성이 얼마나 높으냐의 문제로 무엇에 비추어 타당하느냐의 문제와 어느 정도 타당하냐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개념을 준거 (criterion)라고 부르며, 타당하냐의 '정도'는 흔히 상관계수치의 크기로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검사의 타당도는 그 점수들로부터 유추된 구체적 추정의 정확도로 간주될 수 있다.

타당도의 범주를 크게 내용관련, 준거관련, 구성관련 타당도 세 영역으로 구분하지만,

관점에 따라서 준거관련 타당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공인타당도와 예언타당도를 따로 떼어내어 네 종류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론적 구성, 특성, 행동범주 속에서 다루어지는 구성타당도에 필요한 자료는 흔히 다른 검사 점수들과의 상관, 요인분석, 점수검사의 내적 일관도 등으로부터 얻어진다.

준거타당도와 관련해서는 기스트 그림 흥미검사를 쿠더 직업흥미검사(KOIS)와 비독성 직업흥미검사에 대해 상관계수를 측정하였지만 비독성 직업 흥미검사와의 상관만이 .0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35를 초과하였다 (Elksnin & Elksnin, 1993). 구성타당도와 관련해서는 많은 그림 검사도구들의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

적절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도구 개발자가 검사항목의 개발과 선별에 사용된 과정들을 검사메뉴얼에 기술하여야 한다. 예언타당도와 준거타당도의 경우 .05수준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적어도 .35이상의 상관계수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Elksnin과 Elksnin (1993)은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기법들이 구성타당도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피바디 그리검사의 경우, percentage passing curves와 decoy action 통계치들을 이용하여 잠재 특성들을 구성하였다. 특히, Embreston (1986)은 검사타당도의 두 가지 측면은 구성 진술과 범칙정립적 범위 (nomothetic span)에 초점을 두게 된다고 보았다. 많은 학자들은 단지 지능검사와 학업 성취검사만이 구성타당도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Loevinger, 1957). 여기서는 특수한 인지적 과정과 관련하여 검사 성취도를 분석하는 일이 검사 도구의 이해를 강화시키고 풍부하게 한다고 본다. 어떤 측면에서는 Cronbach (1949)의 논리적 타당도의 개념이 구성타당도와 매우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Guilford는 요인타당도와 실지타당도 (practical validity)로 타당도를 나누었는데 요인타당도는 구성타당도의 개념과 유사한 반면, 실지타당도는 준거 관련타당도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구성타당도는 여러 가지 정보원천들로부터 얻어진 점진적 정보의 축적을 요한다.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등의 방법으로 결정되는 구성타당도의 확보를 위해서 도구 개발자는 ①검사에 있어서 내담자의 성취수준을 설명하는 특성들, ②파악된 구성에 관련된 가설, ③가설의 경험적 논리적 증명이 필요하다. Elksnin와 Elksnin (1993)은 앞서의 여섯 가지 그림 흥미검사는 그 개념구성의 타당도를 설정하기 위해 직업과제 항목들을 논리적으로 유목화 하였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분명하지 않으며, 진로평가 탐구검사 도구, 광역 그림 흥미검사, 기스트 그림 흥미검사 도구의 경우 내용타당도에 관한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 Distefano, Pryer, 그리고 Baker (1983)의 정

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 척도의 요인 구조에 대한 접근, 직업평가 방법에 대한 구성타당도 (Collins & Muchinsky, 1993), 뇌손상 장애인의 적응 척도에 대한 주성분 분석 등이 이용되었다 (Fabiano & Goran, 1992).

Maruyama (1998)는 Campbell과 Fiske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타당도는 기본적으로 수렴성을 띠며, 이것은 서로 독립적인 과정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된 변수는 다른 종류의 검사에 의해 측정된 변수와 강한 상관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렴타당도의 다른 측면이 변별타당도라고 설명하면서 타당한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이한 측정변수들은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과는 서로 낮은 상관을 보이는 교차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공통방식으로 측정된 서로 다른 특성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높게 상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논리적 설명과 경험적 증거를 모두 요하는 구성타당도는 검사도구의 질적 판단에 기초가 된다.

4. 흥미와 구성개념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서는 제도적·환경적 조건의 개선과 더불어 심리적 요소들을 다루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들의 진로개발이나 직업개발에 있어서 동기부여와 흥미요소의 고려는 초기 직업적응과 직업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Roe와 Siegelman (1964)은 흥미를 자발적이고 용이한 주의를 끄는 행동이라고 보았으며, 일반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향 (inclination)이나 욕구 (urge)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 활동, 경험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그만두려고 하는 행동경향으로 정의된다 (이재창, 정영운, 구본권, 손진운, 김정기, 박승호, 1995; 이해수, 1993). 특히, Allport는 흥미가 동기화의 주요한 한 형태라고 보았다 (Roe & Siegelman, 1964). 따라서 흥미는 전통적으로 행동으로부터의 추론, 성장사나 발달사의 점검을 통해 발현된 내용의 분석, 그리고 검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직업흥미는 개인의 직업적 선호라는 점에서 일의 단기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장기적인 직업적응력이나 전문성 재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직업적 성공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약속하는 관건이며, 인력 자원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이라는 면에서 국가·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흥미는 개인의 직업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진로지도와 직업재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내담자 특성이다.

직업재활 단계에서 평가는 재활프로그램 수립에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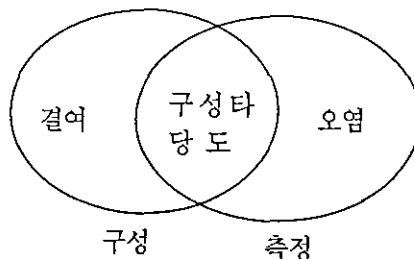
발된 장애인 직업평가도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도구의 개발은 불필요한 장애인 인적 자원의 낭비를 막고 직업탐구와 직업적응, 그리고 직업만족을 높여 이들 개개인의 인권 고양을 가능하게 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개별적 흥미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에 대한 무관심과 일 자체의 회피로 능률이 저해된다. 진로지도와 배치 그리고 상담과정을 통틀어 흥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재활과 더불어 직업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평등한 인간으로서 사회 참여와 사회통합에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경제행위의 주체이자 실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갖는 일이 요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활전문가들이 인지적 제한을 지닌 내담자들의 직업적 진로 욕구들을 충족시키려 할 때 흥미검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Stodden, Ianacone, & Lazar, 1979). 사실상 교육가능급 정신지체인을 포함하는 인지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직업흥미 검사운동은 20년의 역사 밖에 되지 않는다 (Becker, Schull, & Cambell, 1981). 특히, 이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증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보다 취업보다는 직업유지가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종종 개인의 직업만족과 직업적응에 있어서 흥미가 적성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이 아무리 특별한 직업에 높은 적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흥미가 없는 직업을 이어갈 수는 없으며, 흥미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로 작업 능률을 저해한다. 흥미는 직업적 성공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직업전 행동 (pre-vocational behavior/traits)일 것이다 (Stodden, Ianacone & Lazar, 1979).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98-524공법인 칼퍼킨스 직업교육법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공고히 하고 적절한 직업프로그램의 수료와 직업배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 능력, 흥미를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영역에서도 1990년 특수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의 제정을 통해 학교 장면에서 성인기 생활과 직장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IDEA의 제정 배경과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10%만이 졸업 후 취직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특수교육과 재활영역의 접목노력의 성공여부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유애란, 2001).

우리나라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관심밖에 밀려나 있는 장애인 인력개발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장애를 지닌 시민들의 직업진로와 관련된 자기결정력을 높여주는 한편

상당관계를 촉진하는 그림 흥미검사 도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모든 검사도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역시 독특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흥미검사도 구성에 필요한 각각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구성은 검사 점수를 통해 반영되어야 할 하나의 가정된 속성 (a postulated attribute) 혹은 질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떠한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범칙망을 다루는 구성은 하나의 검사도구가 완성되기 이전에 어떠한 속성들이 조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예측하고자 하는 바가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인은 사실상 모든 검사와 측정도구의 이상적인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검사의 질적인 영역을 다루는 이러한 구성타당도는 연구자가 충분히 검사내용의 보편성이나 타당도 있는 준거들 (criteria)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준거들은 검사와 측정도구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내적 일관성은 검사내부 항목들의 동질성 (homogeneity)을 의미하며, 검사점수들의 안정성 역시 의미가 있다. 구성타당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검사 점수와 사전에 할당된 집단 사이의 상이한 내용들을 조사하는 방식과 두 검사 점수 사이의 상관행렬과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요인구조를 살피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상관행렬은 구성요인을,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요인은 그 자체로서 구성요인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타당도를 지지하지 않은 항목 사이의 높은 내적 일관도만 가지고는 타당도를 오히려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내적 일관도라는 것은 측정항목들의 동질성 지표에 지나지 않으며, 측정되는 특성들에 대한 가정이나 이론들은 구성개념과 직접적인 관계를 보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다양한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순수한 논리이거나 혹은 합리적 설명이다. 이러한 구성타당도의 개념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구성타당도 개념

여기서 결여 부분은 구성 속에 있지만 측정되지 않는 것이고 오염은 구조 바깥에 있는 측정치이다. 따라서 구성타당도는 측정되는 구성 속에 있는 것들이 된다 (Sanders & McCormick, 1993, p. 38).

정서와 관련한 얼굴 표정을 그린 42개의 그림들을 통해 검사하는 그림 얼굴표정 검사 (the Pictures of Facial Affect : PFA)에 그려진 각각의 그림은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해 적절한 언어와 짝지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들 42개의 그림에 대한 정답을 총점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 42점에서 0점까지 가능하다 (Drexler, Mychack, & Rosenbaum, 1996). 15명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집단과 치매증상을 보이지 않는 15명의 대조 집단을 비교한 결과 대조집단의 평균 PFA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27.93점 vs. 31.87점). 또한 PFA 검사 결과와 Recognition Memory Test 검사 결과와의 상관 연구를 통해 안면타당도 (face validity)를 확인할 수 있었다 (Drexler, Mychack, & Rosenbaum, 1996).

미국 노동부에서 발간한 진로지도 가이드 (Guide for Occupational Exploration : GOE)와 강화판 진로가이드 (Enhanced Guide for Occupational Exploration : EGOE)는 12요인 직업흥미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Levinson, Parker, Baker, & Emery, 1998). 따라서 Holland의 6요인 직업흥미 이론에 익숙해 있는 평가사와 상담사들에게는 평가결과나 자료들의 비교에 있어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Levinson, et al., 1998). 이 두 가지 방식의 흥미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 통계적으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GOE와 Holland 흥미범주의 관계

GOE	Holland	적률 상관계수
예술 (ART)	예술형 (A)	.67
과학 (SCI)	탐구형 (I)	.50
자연 (동식물, NAT), 방호 (PRO), 기계 (MEC), 산업 (IND)	현실형 (R)	.50, .49, .73, .46
상업 (BUS)	보수형 (C)	.70
판매 (SEL), 선도 (LEA), 신체수행 (PHY)	거업형 (E)	.50, .51, .55
숙박 (ACC), 인도주의 (HUM),	사회형 (S)	.59, .65

출처 : Levinson et al. (1998), p. 67. 재구성

<표 3> GOE와 Holland의 개별 흥미범주별 상관계수

	R	I	A	S	E	C
ART			.67			
SCI	.47	.50				
NAT	.50					
PRO	.49					
MEC	.73					
IND	.46					
BUS						.70
SEL					.50	
ACC				.59		
HUM				.65		
LEA					.51	
PHY					.55	

출처 : Levinson et al. (1998), p. 69 재구성

대학생 41명에 대해 Self-Directed-Search (SDS)를 준거로 하여 OASIS-2 흥미검사 (Interest Schedule : 1S)의 공인 타당도 (concurrent validity)를 밝힌 Levinson 등 (1998)의 연구에서는 앞서 분류된 GOE와 Holland 방식의 흥미범주 사이에는 경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두 평가척도 사이의 공분산 크기를 20%로 설정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 .45이상의 크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Holland 방식의 사회형 (S)과 GOE의 선도 (LEA), 신체수행 (PHY)은 선행연구와 선천적으로는 같은 유목으로 분류되었으나 이 연구결과는 선도 (LEA)와 신체수행 (PHY) 범주는 Holland 방식의 신체수행 (PHY)과의 상관계수가 각기 .18과 -.19로 Holland 방식의 현실형(R) 범주로 이동되었다 (각기 .73과 .46).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OASIS-2 흥미검사는 공인타당도를 지니는 것이다 (Levinson, et al., 1998).

5. 직업흥미와 직업분류 체계

직업흥미는 학습 흥미나 일반흥미와는 달리 여러 가지 직종 가운데 어떤 특정한 직종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관심과 태도를 갖는 것으로 직업적 가치는 직업요소의 선호도로 간주되는 반면, 직업흥미는 직업 활동의 선호도로 간주될 수 있다 (Walsh & Osipow, 1983). 흥미검사의 일 목적은 직업목표들의 설정에 있다 (Siefker, 1996). 개인

에게 있어서 이러한 흥미의 발달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sta, McCare, & Holland, 1984); ① 환경과 사회적 영향; ② 유전; ③ 인성특성; ④ 동기, 욕구, 동인; ⑤ 자아개념.

쌍둥이, 입양가족, 자연적 가족을 이용한 직업흥미의 발달에 관한 Betsworth, Bouchard, Cooper, Grotevant, Hansen, Scarr, & Weinberg (1994)의 연구에서는 분석변량의 약 36%가 유전적 영향을 받으며, 9%는 환경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sworth & Fouad, 1997). 따라서 개인요소가 환경요소의 약 4배에 이른다. 능력과 흥미 사이에는 작지만 유의한 상관이 존재한다 (Betsworth & Fouad, 1997). 흥미와 성격유형 사이에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Holland의 자기탐구식 흥미검사 (Self-Directed Search : SDS)와 (Neuroticism-Extraversion-Openness Inventory : NEO) 성격검사의 상관연구에서 직업흥미는 성격유형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Costa, McCrae, 그리고 Holland (1984)의 연구에서는 탐구형과 예술형 흥미영역은 개방형 (Openness) 및 경험형 (Experience) 성격유형과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형과 기업형 흥미영역은 외향형(Extraversion) 성격유형과 상관을 보였다 (Betsworth & Fouad, 1997).

개인의 능력과 흥미 사이의 관계, 그리고 심각한 신체 장애의 발생 후의 능력변화에 따른 직업흥미의 안정성은 또 다른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Rohe & Krause, 1998). 운동성 감각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척수 손상자 직업흥미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Rohe와 Krause (1998)는 척수 손상 후 약 24년이 경과한 96명의 척수 손상자들에 대해 Strong 흥미검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중간값과 평균값을 이용한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는 각기 .82와 .77로 나타나 직업흥미의 안정성은 장애를 입지 않은 동료들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스트 흥미검사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신지체인에게 실시한 Burg와 Burnett (1965)는 정신지체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기계, 사무, 옥외, 사회서비스, 그리고 드라마에 관한 흥미가 높게 나타났다고 비교 결과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어떤 과제에 대한 적응이나 성공도는 개인의 능동적 자세, 인성적인 자질, 신체적인 특징, 경험적인 교양, 의지적인 강도 및 기타 환경적인 여건 등과 같은 제반 요인들의 복합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흥미는 개인의 학업과 직업 선택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흥미검사는 학교에서 고용 장면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의 전환기 과정과 직업재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상담사 상호작용과 삶의 전망에

대한 기대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특히 흥미측정은 특별한 활동들에 대한 지향성의 위계에 관한 정보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것은 여러 가지 행동 목표와 대안의 선택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동기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된다 (Walsh & Osipow, 1983). 미국에서는 매년 350만 건의 흥미검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 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Costa, McCrae, & Holland, 1984). 인간의 주의를 지배하는 내적 조건으로서의 흥미는 학습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학습자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며, 흥미검사에 의한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재창 외, 1995; 이해수, 1993).

장애 인구집단에 적용되는 흥미검사들의 직업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Campbell Interest and Skill Survey (CISS)는 스트롱-캠벨 흥미검사의 대체용 자기보고식 흥미검사로 직업영역, 직업활동에 대한 선호 및 직업세계와 관련된 200개 항목을 매우 좋다에서 매우 싫다까지의 여섯 점수척도에 따라 평가하게 되나 각 항목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평가대상이 된다. 이것은 홀랜드의 육각형 직업분류 방식에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기초흥미, 과정체크 등의 범주들에 대한 평균타당도 지수는 실제 어떤 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직업척도 점수에 있어서 약 2 표준편차의 차이를 보였다 (Siefker, 1996).

Career Assessment Inventory (CAI)는 비전문직 직업들에 종사하는 단어 독해능력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 홀랜드 방식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다. 37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지필검사는 일상활동, 교과목, 직업명의 세 가지 범주에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 매우 싫다에서 매우 좋다까지의 흥미수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타당도는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VPI)와 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SCII)에 대해 서로 비교하는 준거·참조방식으로 70대와 80대의 상관계수를 얻었다 (Siefker, 1996).

COPSystem 흥미검사는 서로 관련된 직업군들에 있어서의 168개 직업활동들에 대한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항목들에 대해 매우 좋다에서 매우 싫다까지의 네 가지 척도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지필검사 방식의 흥미검사 도구로 요인 분석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범주에 따라 문항들이 서로 높게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iefker, 1996).

Geist 그림 흥미검사 (GPII-R)는 1)판매(Persuasive), 2)사무(Clerical), 3)기계(Mechanical), 4)음악(Musical), 5)과학(Scientific), 6)육외(Outdoor), 7)문학(Literary), 8)

계산(Computation

al), 9)예술(Artistic), 10)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11)공연(Dramatic), 12)개인수발(Personal Service)이라는 12개 일반 흥미영역(남성은 11개 영역)에 대해 세 개의 한 벌로 된 그림을 남성은 44개, 여성은 27개를 제시하여 좋아하는 그림에 원형 마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 시행시간이 무제한적인 자기보고식 검사로 집단 실시가 가능하다. 각 흥미영역에 표시된 원을 취합하여 원 점수를 얻고 이를 다시 T점수로 전환하여 개인의 흥미 프로파일을 구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은 11개 흥미점수, 여성은 12개 흥미점수들과 함께 일곱 동기화 점수를 얻게 된다. 검사척도 점수와 각 직업영역별 실제 근로자들의 직업에 대한 상관계수들이 보고되어 있다 (Siefker, 1996).

Reading-Free 직업흥미검사(R-FVII)는 정신지체와 학습장애 등을 지닌 불이익 집단의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활동을 묘사한 55개의 세 벌로 된 그림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불이익 집단은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혹은 교육적 결핍과 박탈로 인해 평균 이하의 기능을 지닌 사람들이다. 개별 및 집단 검사가 모두 가능하며, 원 점수는 T점수와 백분위 점수로 전환된다. 이 검사와 Geist 검사와의 상관계수가 다음의 표2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흥미 영역은 1)차량(Automotive), 2)건물관리(Building Trades), 3)사무(Clerical), 4)동물보호(Animal Care), 5)요식업(Food Service), 6)환자보호(Patient Care), 7)원예(Horticulture), 8)가사(Housekeeping), 9)개인수발(Personal Service), 10)세탁업(Laundry Service), 11)상품정리(Materials Handling)라는 모두 11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흥미경향은 1회용 검사용지를 이용하여 답안지를 표시한 후에 검사 점수는 개인 프로파일로 작성된다. 검사의 타당도는 연구팀에 의해 직무 과제들에 대한 진술을 논리적 공통성 (commonality)에 따라 11개 직업 범주로 구분함으로써 설정되었다. 항목의 변별력은 각 범주별 상하 27%의 준거에 의해 Phi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구해졌다. Vocational Interest Inventory(VII-R)는 Anne Roe에 의해 고안된 1)서비스(Service), 2)실업(Business Contact), 3)조직(Organization), 4)기계(Technical), 5)옥외(Outdoor), 6)과학(Science), 7)일반 문화와 예술(General Culture and Arts), 8)유희(Entertainment)과 같은 여덟 직업 영역에서의 상대적 흥미 크기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112개의 검사항목들은 각기 두 개의 직업이나 일반활동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단검사와 개별검사 시행이 가능하다. 검사결과는 개별 프로파일로 제시되고 예언타당도는 검사점수와 대학의 전공 사이의 상관계수에 의해 높게 설정되었다.

<표 4> R-FVII와 Geist 검사와의 상관계수 (단위 : 명)

R-FVII	Geist	청년EMR (48)	청년이후EMR (48)	보호작업장성인 (52)	불이익집단성인 (41)
차량	기계	.36 *	.41 **	.42 **	.39 *
건물관리	기계	.33 *	.37 **	.37 **	.38 *
사무	사무	.27	.21	.30 *	.44 **
사무	문학	.42 **	.39 **	.20	.32 *
사무	계산	.38 **	.40 **	.40 **	.45 **
사무	판매	.37 **	.34 *	.26	.30
동물보호	육외	.35 *	.39 **	.46 **	.49 **
요식업	판매	.16	.19	.27 *	.33 *
환자보호	사회서비스	.60 **	.63 **	.49 **	.70 **
환자보호	과학	.69 **	.77 **	.55 **	.74 **
원예	기계	.17	.28 *	.19	.32 *
원예	실외	.23	.18	.30 *	.29
가사	기계	.39 **	.46 **	.30 *	.36 *
개인수발	사회서비스	.22	.28 *	.39 **	.34 *
상품정리	계산	.10	.17	.27 *	.20
요식업	개인수발	.38 **	.43 **	.35 **	.48 **
요식업	사무	.45 **	.44 **	.38 **	.43 **

(Siefker, 1996).

WRIOT의 타당도는 Geist 그림 흥미검사와의 상관계수에 의해 설정되었다 (Siefker, 1996). APA에 의해 B 등급의 검사기준을 판정 받은 R-FVII가 채택하고 있는 11 가지의 직업범주 혹은 흥미영역은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직업적 활동들의 집단 (groups)이나 군 (clusters)을 분류함으로써 만들어 졌다 (Becker, 1988). 특히, 이 검사 결과는 보충적으로 DOT상의 550개 직업명을 담고 있는 직업리스트 (Occupational Title Lists : OTL)에 의해 측정된 직업흥미와 리스트 상의 적절한 직업들을 서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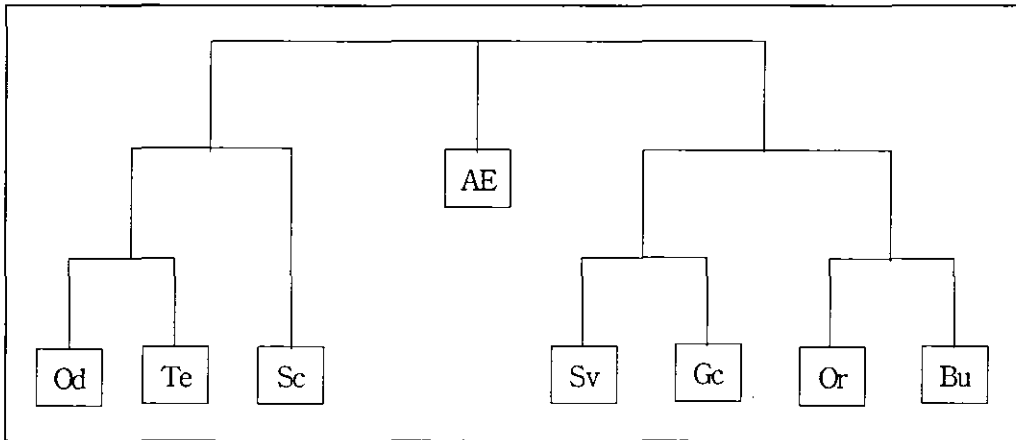
WRIOT와 Geist검사 T점수 사이의 흥미 범주별 상관계수는 -.01 에서부터 .55까지의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다 (Jastak & Jastak, 1979). 또 모두 11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족화에 의한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7기준은 인물과 상징이라는 2 요인구조로 설명 되었으며 다른 부모자녀 친밀도 척도와의 상관은 .69 ($p < .01$)로 나타나 가족화에 의한 심리검사는 구성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정현희, 1997).

직업의 세계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분류체계는 직업군의 분류와 근로자 기능의 분류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이루어져 왔다 (Isaacson & Brown, 1997).

1) 흥미구조

전통적으로 흥미의 구조는 직업적 자극들에 대한 하나의 구조, 정의적 반응이라고 간주되었고 직업과 직업 사이의 관계와 흥미와 흥미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오래 동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Walsh, 1979). Cohen과 Rusalem (1964)은 정신지체인의 직업적 가치 범주를 ① 승진 ② 수혜 ③ 독립성 ④ 흥미로운 일 ⑤ 특권 ⑥ 대인관계 ⑦ 급여 ⑧ 안전 ⑨ 작업조건의 아홉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정신지체인들은 특히 승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려하였는데 그 이유에 이들도 직업적 목표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성취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어휘력이 학업 성공에 있어서 최선의 지표라고 보는 피바디 그림 검사 (PPVT)는 1963년판 웹스터 사전을 검토하여 흑백 선으로 명료하게 묘사될 수 있는 3,885개의 단어들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선별된 각기 150개의 단어를 담고 있는 검사도구로 제작되었다. 초기에 단어 어휘들의 문법적 균형을 위해 19개의 범주들이 나누어졌고 몇 차례의 선별과 정련 과정을 통해 각기 다른 세 가지 난이도 수준에서 모두 684개의 자극 단어들 이 개발되었다. 단어에 일치되는 그림들을 이용하여 크기, 시자극, 성별과 인종상의 고려, 연령수준의 준거 속에서 검사 카드가 제작되었다. 광역그림 흥미검사 WRIOT는 세 가지 각기 다른 직업활동을 묘사하는 흑백 그림으로 구성된 150개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예술, 인문, 음악, 드라마, 판매, 경영, 사무, 개인 서비스, 방출 서비스, 사회 서비스, 사회과학, 생물과학, 물리과학, 수학, 기계, 기계 조작, 야외활동, 체육 등 모두 18개의 흥미 영역으로 구분됨을 살펴볼 때 활동 그림이 각 흥미 영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Jastak & Jastak, 1979). 의미 미분법을 이용하는 15개의 양극척도를 통한 열 가지 직업자극군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한편, Strong (1943)은 남자들의 직업흥미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4개에서 5개의 요인으로 직업흥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Roe (1956)는 모든 흥미는 여섯 가지 수준에서 여덟 분야에 의해 대표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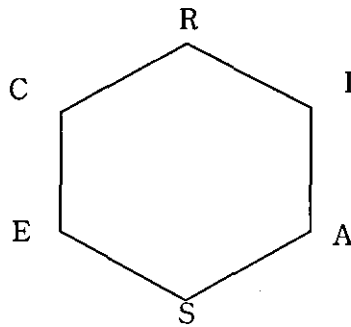
<그림 2> Roe 모형

또한, 상담영역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진로발달과 선택에 관한 Holland의 이론은 흔히 구조적 접근으로 다루어지며, Super의 이론은 인도주의적이고 발달론적인 것으로 다루어진다 (Holland, 1992; Weinrach, 1996). 자아개념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 현미 (1978)는 성격, 능력, 외모, 가정환경, 대인관계와 같은 일반 구성요인은 성별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 비중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나 흥미검사의 개발, 제작시에도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흥미검사에서 이러한 구성요인은 사실상 검사 수행에 있어서 반영되는 피평가자의 가정된 특질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1970년대의 실험심리학과 심리측정방법의 부흥이 구성요인에 대한 이해에 크게 기여하였다. 각각의 구성은 관찰된 반응의 일관된 요소들을 설명하고 조직하기 위해 개발된다. 구성에 관한 가설들을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검정하기 위해 종종 요인분석의 방법이 사용된다. 1954년에 심리측정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된 구성타당도는 자료수집을 위해 다양한 구체적 과정들이 이용되는데 여기에는 요인분석, 집단차 분석, 검사와 요인과의 관계, 내적 구성에 대한 연구, 종단적 변화 분석 등이 포함된다 (Bechtoldt, 1959; Cronbach, 1955; Goran, 1969).

최소공간분석 (Small Space Analysis)과 애드트리 (Addtree)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직업흥미의 구성의 위계와 관계지은 Holland는 아래의 <그림 3>와 같은 단차원의 육각형 원형 분류모형을 제시한 반면, Roe는 <그림 2>과 같은 위계적 영역의 분류모형을 제시하였다 (Gati, 1979). 이처럼 Holland의 모형에서는 사람의 인성과 직업적 환경은 현실형 (realistic : R), 탐구형 (investigative : I), 예술형 (artistic : A), 사

교형 (social : S), 기업형 (enterprise : E), 그리고 보수형 (conventional : C)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Hansen & Campbell, 1985). Roe모형에서는 Te=공학 (technology), Sc=과학 (science), Od=옥외 (outdoor), Ae=예술과 표현 (arts and entertainment), Sv=서비스 (service), Gc=일반문화 (general cultural), Or=조직형 (organizational), Bu=사업형 (business contact)의 여덟 분야로 구분된다 (Gati, 1979).



<그림 3> Holland모형

Prediger와 Hansen (1978)은 Holland의 이 분류 모형의 흥미 영역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여섯 표본 집단에서 확보된 10,388명의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과 남성 사이의 흥미 구조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고 뉴질랜드의 고등학생들에 대해 남 여 각 50명씩 짝짓기 표집하여 검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자신의 첫 번째 분류 직업군에 대한 직업을 추구하려는 강한 열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eeling & Tuck,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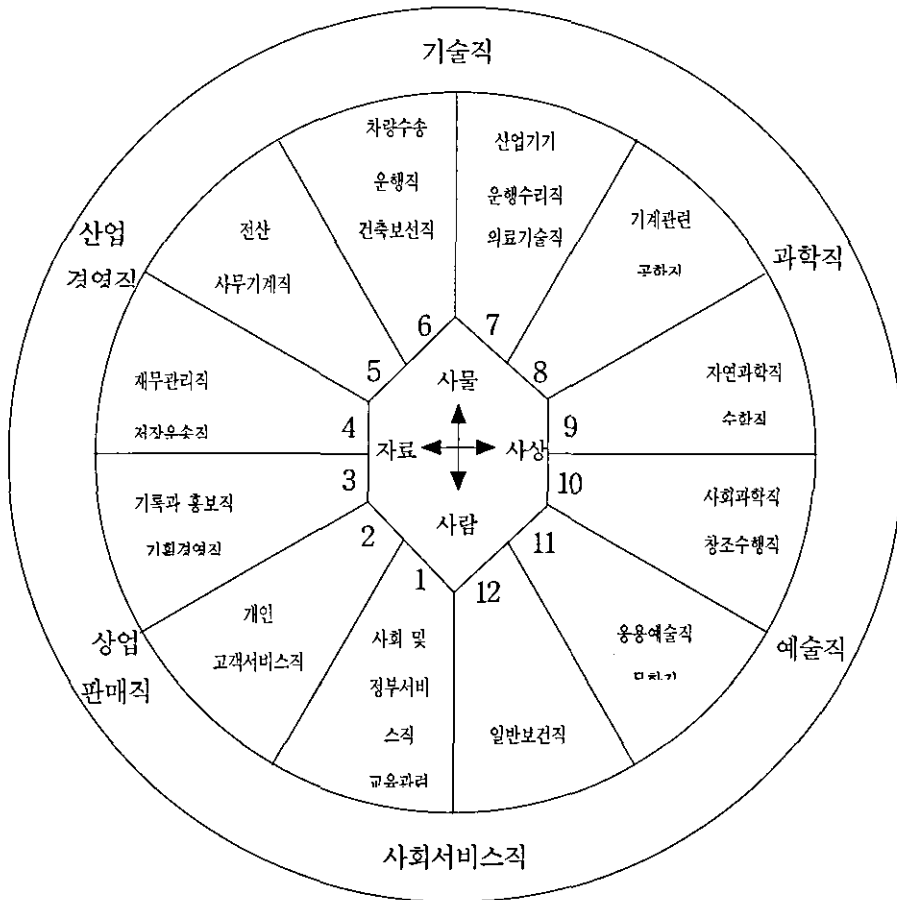
그러나 결론적으로 광역 흥미검사 및 기스트 그림 흥미검사와 같은 그림 흥미검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흥미의 범주와 구성개념에 대한 자료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경험적 연구논문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피바디 그림검사의 구성타당도에 대한 설명을 위해 검사항목의 동질성 확인을 통한 도구의 내적 일관도, 항목의 분포곡선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구성개념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담지 못하고 있다.

2) 직업분류 방식

DOT보다 앞서 개발된 직업분류 방식은 Roe에 의한 이차원적 분류방식이다. Roe는 직업활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나 분야에 따른 수준과 직업의 복잡성과 책임에 따른 수준에 의거하여 서비스, 상업, 경영, 기술, 육외, 과학, 문화인문, 그리고 예술과 여가라는 여덟 분야를 횡축으로 하고 특정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 능력, 책임감의 정도에 따라 고위경영관리직, 관리전문직, 준 전문직, 상업직, 숙련직, 반숙련직, 그리고 비숙련직의 여섯 가지 수준을 나누어 이를 종축으로 하여 직업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방식의 단점은 다양한 직업들이 요구하는 직무내용들이나 적성수준들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Isaacson & Brown, 1997).

Holland의 직업분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격유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여섯 가지 성격유형은 직업의 선택과 만족에 전적으로 기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직무분석에 의한 정보와 자료들은 각 직업의 근로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근로자 기능들을 결정한다. 근로자 기능에 따른 분류방식은 주로 DOT라고 하는 자료, 사람, 그리고 사물을 다루는 내용에 의거한다. Holland 분류방식에 대한 비판은 직업환경의 크기나 복잡성이 직업별로 동일하지 않으며, 직업환경 역시 직업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기획업무에 치중하는 상담사와 상담업무에 치중하는 상담사와 같이 동일 직종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다양한 근무처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동일하게 다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World-of-Work Map 방식은 주로 Prediger와 Swaney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DOT상의 모든 직업들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모두 12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유사한 직업들은 거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이 분류방식은 자료 (data), 사상 (ideas), 사람, 그리고 사물 (things)과 관련된 일차적 직무과제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다.



<그림 4> 12개 범주의 직업유형 (출처 : Isaacson & Brown, 1997, p. 144)

Dawis와 Lofquist 등에 의한 Minnesota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III (MOC III) 방식은 직업을 특정한 직무가 제공하는 강화제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이러한 강화제와 능력은 지각적, 인지적, 운동 기술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여덟 가지 범주로 각기 나누어진다. 이러한 8 × 8 분류방식은 결국 64 가지 상이한 직업 군을 만들어 낸다 (Isaacson & Brown, 1997).

훈련가능급 정신지체 (trainable mental retardation : TMR)를 지닌 남자 25명과 여자 25명을 대상으로 하여 R-FVII를 실행한 Becker, Schull, 그리고 Cambell (1981)의 연구에서는 훈련가능급 정신지체인도 흥미검사를 통해 실제적인 직업흥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된 흥미검사 결과는 이 도구가 상당한 예언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25명의 여성 중 14명이 5년 후에도 초기에 배치된 지역사회의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였고 나머지 11명도 역시 초기 검사결과에 따라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일했다.

25명의 남성 중 18명은 최초 고용된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7명은 건강과 정서상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8명 중 11명은 흥미검사에 의한 첫 번째 직업, 5명은 두 번째 직업, 그리고 2명은 세 번째 직업에 각기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과 함의

정신지체를 포함하여 언어성 검사에 필요한 지적 능력이나 생활경험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림 흥미검사의 개발은 이들의 진로 지도, 진학계획, 직업선택, 훈련종목의 선택, 선택적 직업배치, 직업 변경 등 여러 측면에서 직업재활과 적응에 기여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의 흥미탐색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히 타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이 나타났고 궁극적으로 흥미탐구 검사가 직업 신장과 잠재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흥미검사 도구들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 Holland 방식의 직업분류에 따른 항목들의 개발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려되었다.

사실 재활인력의 격증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 장애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이 사회발전과 더불어 이루어 졌긴 하지만,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중증장애를 지닌 시민들은 더 큰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명화 된 생활양식을 즐기고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알맞은 생활을 요구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책임감을 당당히 수행할 수 있는 직업활동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바야흐로 장애의 재활분야에서도 '중증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대한 서비스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직업평가는 내담자의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문화적 영역들에 대한 사정 결과들을 직업과 관련하여 종합하고 상담사와 내담자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하여 직업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 특성, 직업육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련의 포괄적 과정이다 (Commission on Certification of Work Adjustment and Vocational

Evaluation Specialists : CCWAVES, 1993; Lee & Park, 2000). 장점, 단점, 욕구 등 내담자에 대한 건전한 평가에 기초하여 최선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가족, 내담자, 상담사, 교사, 평가사 등 중요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데 평가는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정기적 평가는 직업재활 과정에서 얻어진 성취와 기능적 진보, 그리고 개선의 정도를 파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활동과 과정이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Dunn & Fait, 1989). Power (1991)는 직업평가를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의 최적의 결과 (outcome)를 발견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 제한점들, 그리고 인내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포괄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p. xiii). 이처럼 직업평가는 자연적 혹은 창조된 환경 속에서 내담자 관찰 기술들을 활용한 임상적 방법이며, 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작인 동시에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직업평가의 일부인 흥미검사의 역할은 장애인의 제반 장점들을 찾아내고 이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잠재력과 능력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직업평가사가 직업평가 도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고려 사항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내담자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결정은 물론 평가사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전문적 판단에 달려 있지만 대체로 현장평가 (job site evaluation)가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실제의 직업과의 관련이 가장 높다고 본다. 따라서 상황평가 (situation assessment)와 작업표본 방식 (work sample techniques)의 심리검사 방식보다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실제의 직업과의 관련에서는 심리검사 방식보다는 높고 현장평가보다는 다소 낮다고 본다 (Siefker, 1996). 상황평가 방식은 보호작업장의 이용, 생산품의 계약, 그리고 감독직원의 필요 등으로 인해 다소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작업표본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작업표본은 평가뿐만 아니라 실제의 직업이나 혹은 직업군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직무과제들, 재료, 도구들을 활용하는 직업활동의 일부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Fewell, 1997). 어떤 상업용 작업표본 도구들은 미화 25,000불이 초과되는 것들도 있다.

그럼 흥미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내담자에 대해서 올바른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직업배치율과 취업알선율을 높일 수 있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결과에 따른 적절한 개별화된 직업탐구, 진로지도를 내담자 개개인에게 실시하여 적성 직종에 취업과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내담자의 인권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내담자 개개인의 직업재활 요구에 일치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직업 훈련가능성을 탐구하고 구인자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며, 간접적 직업세계의 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직업적 태도, 동기, 그리고 기타 적절한 정의적 영역과 직업 행동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노동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직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셋째, 평가에 수반되는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직업평가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단일의 양식을 계획하고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직업 훈련, 배치와 재활전문가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계속 버전업이 가능하다.

넷째, 장애인 스스로가 현재 자신의 직업적인 수준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적절하고 필요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받음으로써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크게 높이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타당한 개별 내담자 재활계획 수립을 통해 재활을 앞당기며, 저경제 성장시대와 고실업 시대의 개별 장애인의 생존전략을 강구할 수 있다.

다섯째, 구체적 흥미검사를 통해 얻어진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는 재활프로그램 종결 이후의 체계적 사후지도를 통해 다른 재활관련 시설의 이용 및 노동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정보를 얻는다.

여섯째, 장애인 취업알선에 필요한 구인, 구직정보망을 구축하고 개발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직업알선과 직업배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노동시장의 수요와 국가의 노동력 공급체계에 일조를 기한다.

일곱째, 지역사회 노동시장의 특성과 산업전망, 주요 업종을 알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장애인의 적성 직업 및 직종 개발을 꾀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직업평가 개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고 시기 적절하고 현실적인 직업시장과 노동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와 관계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인지력 장애, 특히 정인지체를 지닌 시민들의 직업적 개발에 관한 중요성을 논의하고 내담자 중심의 장점과 특성을 강조하는 검사방식을 다루었다. 이러한 검사방식 중 그림을 이용한 흥미의 탐색은 과학적 과정과 합리적 절차가 사용된다면 충분히 타당할 것으로 사려되었다. 왜냐하면, 개인이 표현한 그림에는 그림이 나타내 주는 심상 뿐만 아니라, 개인 내면의 정서적 동인과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검사는 인지능력과 다양한 심리상태를 유추하기 위해 임상에서는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고 개발된 대부분의 검사들에 대한 공인타당도는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재활에서 그림 흥미검사를 통한 내담자의 직

업탐구와 직업선택에 대한 해석은 상담사의 시간을 크게 절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내담자의 분류방식에 대응하는 직업분류 방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난 1세기 동안 다루어져왔고 대체로 직업사전에서 채택하고 있는 12가지 분류방식은 Holland의 6가지 분류방식으로 압축되며, 이런 방식에 기초한 많은 직업검사들이 제작되었고 본 연구에서 검토되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에 의거하여 많은 임상적,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기초할 때 직업탐색과 진로상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의 실제적 활용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 인지적 장애를 지니거나 독해력과 읽기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흥미탐구 검사는 이들의 직업적 개발과 잠재력 신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림 흥미검사의 척도와 항목들의 개발은 시급하다. 지금까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흥미검사 도구들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 Holland방식의 직업분류에 따른 항목들의 개발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의 연구는 Holland 방식을 이용한 검사도구들의 측정결과와 직업사전 방식을 이용한 검사도구들의 측정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공인타당도 확인하고 구성개념에 대한 정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연, 정현희 (1997).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에 의한 심리진단과 치료.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성애 (2001). 통합교육이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심리적 통합에 미치는 작용에 관한 일추론: 통합은 과정이다. 대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제19차 춘계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pp. 1-14.
- 김승국 (1997). 발달장애인 직업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김재은·여광응·김동국 (1991).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 서울: 교육과학사
- 김태련 (1972). 그림 좌절 검사(아동용)실시 지침.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태련 (1993). 나무그림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태련·박랑규 (1996). 이화-자폐아동 행동 발달 평가도구 실시요강. 서울: 특수교육
- 박영보 (1982). 정상아와 침각장애아의 그림좌절 검사 반응의 비교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논문
- 서봉연·정보인·최옥순 (1986). 유아·아동용 그림지능검사 한국판 P.T.I.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유애란 (2001). 지식정보사회와 전환교육. 천안 나사렛대학교 : 2001년도 한국직업재활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 83-96.
- 이상욱 (1995). 청각장애인의 문해실태조사 분석. 직업재활연구 5, 91-122
- 이재창, 정여운, 구본현, 손진훈, 김정기, 박승호 (1995).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 서울 : 문음사
- 이창우 · 서봉연 (1974). K-WISK 실시요강. 서울 : 교육과학사
- 이해수 (1993). 심리학의 원리. 서울 : 양서원.
- 이현미 (1978). 자아개념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 심리학연구, 6, 31-37
- 전용신(1970). 고대비네 검사요강. 서울 : 꿈나무
- 한국 미술치료학회 (1997).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도서출판 동아문화사
- 한국 심리학회(1997). 현대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문사
- Anderson, W. T. (1986). Prevocational and vocational assessment of handicapped students. In P. J. Lazaraus & S. S. Strichart (Eds.). Psychoeducational evalu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low incidence handicaps (pp. 285-304). New York : Grune & Stratton.
- Batsche, C. J. (1982). Handbook for vocational school psychology. Des Moines, IA :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Bechtold, H. P. (1959). Construct validity : A critique. American Psychology, 17, 95-96.
- Becker, R. L. (1981). Reading-free vocational interest inventory manual-Revised. Columbus, Ohio : Elbern Publications.
- Becker, R. L., Schull, C., & Cambell, K. (1981). Vocational interest evaluation of TMR adult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5(4), 350-356.
- Berg, B. L.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Boston : Allyn and Bacon
- Betsworth, D. G., & Fouad, N. A. (1997). Vocational interests : A look at the past 70 years and a glance at the futur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23-42.
- Betsworth, D. G., Bouchard, T. J. Jr., Cooper, C. R., Grotevant, H. D., Hansen, J. C., Scarr, S., & Weinberg, R. A. (1994).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vocational interest assessed using adoptive and biological families and twins reared apart and togethe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4, 263-278.
- Burg, B., & Burnett, A. (1965). Interest testing with the mentally retarded : A bi-sensory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69, 522-548.
- Cattell, R. B. (1963). The fluid and crystallized intelligence : A critical experi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4, 1-22.
- Cohen, J. S., & Rusalem, H. (1964) occupational value of retarded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69, 54-62

- Coleman, E. B. (1968). Experimental studies of readability. Elementary English, 45, 166-178.
- Collins, J. M. & Muchinsky, P. M. (1993). An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three job evaluation methods : A field experi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6(4), 895-904.
- Commission on Certification of Work Adjustment and Vocational Evaluation Specialists (1993). Glossary of Terminology. Menomonie, WI : Material Development Center.
- Cooper, H., & Dorr, N. (1996). Conducting a meta-analysis. In T. L. Leong, & J. T. Austin (Eds.). The psychology research handbook (pp. 229-237). Thousand Oak, CL : Sage Publications, Inc.
- Costa, D. T., McCrae, R. R., & Holland, J. L. (1984). Personality and vocational interest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 390-400.
- Cronbach, L. J. (1949). Essentials of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 Horper Brothers.
- Cronbach, L. J. (1955/July). Construct Validity in Psychological test. Psychological Bulletin, 4, 281-302.
- Distefano, M. K. JR., Pryer, M. W., Baker, B. F. (1983). Factor structure of a clients' satisfaction scale with psychiatric inpatients. Psychological Reports, 53, 1155-1159.
- Drexler, M. L., Mychack, P., & Rosebaum, R. L. (1996). "Face valid" measures in the assessment of dementia : Realistic evaluation with apparent ecological validity. Archives of Clinical Neuropsychology. 11(5), 384-385.
- Dunn, J., & Fait, H. (1989). Special physical education : Adapted individualized developmental. Dubuque, Iowa : Wm. C. Brown Publishers.
- Dunn, L. M., & Dunn, L. M. (1981).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Forms L and M Manual. Circle Pines, Minnesota : American Guidance Service.
- Elksnin, L.K., & Elksnin, N. (1993). A review of picture interest inventories : Implications for vocational assess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1, 323-336.
- Embreston, S. E. (1986). Intelligence and its measurement : Extending Contemporary theory to existing tests, Advances in the Psychology of Human Intelligence, 3, 335-368.
- Fabiano, R. J. & Goran, D. A. (1992).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the katz adjustment scale in a traumatic brain injury rehabilitation sample. Rehabilitation psychology, 37(2), 75-85.
- Fewell, S. (1997). Supporting vocational evaluation and adjustment staff to adapt to the

- changing marketplace. *The Issues Papers, Eighth National Forum on Issues in Vocational Assessment*. Menomorie, Wi : Stout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 pp. 92-107.
- Flesch, R. F. (1949). *The art of readable writing*. New York : Harper.
- Gati, I. (1979). A hierarchical model for the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5, 90-106.
- Goran, E. (1969). *The construct Validity of mechanical aptitude tests*. Stockholm : PA-Council.
- Gunning, R. (1968). *The techniques of clear writing*. New York : McGraw-Hill.
- Hansen, J. C. & Campbell, D. P. (1985). *Manual for the Strong Interest Inventory*.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 Holland, J. L. (1992). *Making Vocational choices(2nd ed.)*.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Isaacson, L. E., & Brown, D. (1997).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6th ed.)*. Needham Heights, MA : A Viacom Company.
- Jastak, J. F., & Jastak, S. (1979). *Wide Range Interest-Opinion Test Manual*. Wilmington, Delaware : Jastak Associates, Inc.
- Keeling, B., & Tuck, B. F. (1978). Raw scores versus same-sex normed scores :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validity of Holland's SDS with adolescents of both sex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3, 263-271.
- Lee, D. Y. & Park, S. D. (2000). Assessment in the field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0(2), 123-149.
- Levinson, E. M., Parker, R. M., Barker, W., & Emery, J. L. (1998).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crosswalk between the Guide for Occupational Exploration's 12-Factor Interest Model and Holland's Six-Factor Interest Theory.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Journal*, 31(4), 67-70.
- Loevinger, J. (1957). Objective tests as instrument of psychological theory. *Psychological Reports*, 3, 635-694.
- Maruyama, G. M. (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 Mithaug, M. D. (1996). *Equal opportunity theory*.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Inc.
- O'Connor, N; Hermelin, B (1973). Short-term memory for the order of pictures and syllables by deaf and hearing children, *Neuropsychologia*, 11(4), 437-442.
- Power, W. A. (1991). *A guide to vocational assessment* (2nd ed.). Austin-Texas : Pro-ed.

- Prediger, D. J. & Hansen, G. R. (1978). Must interest inventories provide males and females with divergent vocational guid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Guidance*, 11, 88-98.
- Roe, A. Siegelman, M. (1964). *The origin of interests*. Washington D. C. :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 Roe, A. (1956). *The psychology of occupations*. New York : John Wiley & Sons.
- Rohe, D. E. & Krause, J. S. (1998). *Stability of interests after severe physical disability* : An 11-years longitudinal study.
- Sanders, M. S., & McCormick, E. J. (1993). *Human factors in engineering and design (7th eds.)*. New York : McGraw-Hill, Inc.
- Scaparti, S. (1982). Vocational assessment. In H. L. Swanson, & B. L. Watson (Ed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assessment of exceptional children : Theories, strategies, and applications* (pp. 347-372). St. Louis, MO : Mosby.
- Siefker, J. M. (1996). *Tests and test use in Vocational evaluation and assessment*, Menomomie, WI : The Rehabilitation Resource.
- Sticht, T. G. (1975). *Reading for working : A functional literacy anthology*. Alexandria, VA : Human Resources Research Organization.
- Stodden, R. A., Ianacone, R. N., & Lazar, A. L. (1979). Occupational interests and mentally retarded people : Review and recommendations. *Mental Retardation*, 17(4), 294-298.
- Strong, E. K. Jr. (1943). *Vocational interests of men and women*.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Suen, H. K., & Ary, D. (1989). *Analyzing quantitative behavioral observation data*.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Wallace, G., Larsen, S. C., & Elksnin, L. K. (1992). *Educational assessment of learning problems : Testing for teaching* (2nd ed.). Boston : Allyn & Bacon.
- Walsh, W. B. (1979) Vocational behavior and career development, 1978 : A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5, 119-154
- Walsh, W. B., & Osipow, S. H. (1983).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 Volume 2 Applications* (Eds.).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Weinrach, S. G. (1996). The psychological and vocational interest patterns of Donald Super and John Holland,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 5-16.

A study on linguistic the validity of characteristics and
picture test inventories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al-Yob Lee, Im-Dae Noh, Seung-Wook Lee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Taegu University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for rehabilitation to deal with psychological aspec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efforts improving the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 majority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in the situation of Korea have difficulty in having and maintaining a job. Work should and would be a source of self-respect and material well-being in this modern society. Therefor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re measures in restoration of family function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linguistic characteristics and the validity of constructional concepts of picture interest test inventories that have been utilized for the segregated groups of people such as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icture interest test inventories seemed to be valid for measuring psychologic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and this finding can be extended to the group of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ch as learning disabilities and mild/moderate behavioral deficits. The Holland classification system seemed to be best fitted for developing a comprehensive and accurate vocational interest inventory.

■ 국문초록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서 제도적 환경적 개선노력과 더불어 심리적 요소들을 다루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사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의 지속이 어렵게 된다. 일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에 대한 창조적 기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장애를 지니지 않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자유와 능력을 신장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도구이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진로개발이나 직업개발에 있어 동기부여와 흥미요소의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장애, 특히 중증의 장애를 지닌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림검사, 특히 그림 흥미검사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초기 과정으로서 흥미검사의 구성개념을 분석하고 그 개념의 타당도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본 연구의 토대이다. 연구결과 정신적 심상은 발달장애인의 학습과정을 촉진시키며, 그림 자극이 재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여러 가지 검사도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Holland의 여섯 가지 분류방식에 의거한 많은 임상적,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기초할 때 직업탐색과 진로상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의 실제적 활용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장애를 지니거나 독해력과 읽기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흥미탐구 검사는 지금까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흥미검사 도구들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 Holland방식의 직업분류에 따른 항목들의 개발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